

# 스톤월 항쟁과 동성애인권운동

- 스톤월항쟁 기념 행사를 제안하며 -

다가오는 6월27일은 전세계 레즈비언 게이들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스톤월 항쟁 Stonewall Riot 27주년 기념일'입니다. 아다시피 스톤월 항쟁은 근대사회 등장 이후 남녀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진 숭한 박해와 억압을 거부하고, 게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자각하고 펼쳐일어선 게이 해방운동 *gay liberation movement*의 분수령입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69년 6월 27일, 미국 뉴욕은 전례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오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에 짓눌려온 온 동성애자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힘에 의한 저항의 역사를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전보의 지평을 연어제끼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발달, 교통, 통신체계의 진전에 힘입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둘 게이들의 삶과 휴식의 공간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바로 게이 공동체 *gay community*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자, 광인 혹은 정신분열자, 부도덕한 예술가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공포스럽게 존재하던 동성애자들이 마침내 조심스럽게나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적 소수집단으로서의 고립을 벗어나는데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요람이던 게이 공동체가 이성애주의적 사회로부터 관대한 대접을 받물리 단무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적 폭력기관들이 어떤 정당한 절차와 원칙도 없이 마치 관계처럼 게이 공동체를 무단급습하였고, 무고한 많은 동성애자들이 구금을 당하고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20세기에 접어들며 성적 자유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변적인 성적 소수집단들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성애 중심주의가 완고하게 세인들의 태도를 좌우하면서 다른 종류의 성적 지향성을 가진 집단을 증오하고 부정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과 박해에 맞서 동성애자들이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해 그날, 뉴욕의 게이 커뮤니티에 있던 게이바 스톤월 인 *Stonewall Inn*을 경찰이 무단급습하자, 이들의 만행에 분노한 게이들이 항의를 시작하며 투석전을 벌이게 되었고, 급기야 이 투쟁은 뉴욕의 게이 공동체 전역을 뒤흔든 대대적인 며칠 밤낮의 장기적 투쟁으로 급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뉴욕의 동성애자들의 항거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그에 고무된 여러 대도시 게이 공동체에서도 역시 투쟁의 물결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도시 지역에서 그간의 반동성애적 폭력과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마침내 전세계 동성애자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고 게이해방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개척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의 활동을 통해 동성애자의 삶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자 애써 온 여러 동성애 인권운동 모임들이 함께 모여 스톤월 항쟁을 적극 알리고, 그간 우리사회 내부를 끈질기게 버텨오고 있던 반동성애주의의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기회들

통해 우리들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보여온 관심에 대한 바 있지만, 정작 남녀 동성애자의 삶의 권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동성애자들이 모색하고 기대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을 떼려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강요해온 굴욕스런 침묵의 재갈을 벗어던지고, 또 우리들 스스로 가두어온 어둠에서 벗어나, 이성애자들에게 독점되어온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관한 발언의 권리를 우리들 스스로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995. 6. 9

Handwritten box containing the number 5-10-11

Extensive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at the bottom of the page, including names like '김영민' and '김영민'.